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특성과 사회자본*

김세현**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in Seoul*

Se Hyun Kim**

요약 : 이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사회자본 설명 요인을 탐색하고 이주민의 출신 국적에 따른 사회자본 구조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에 진행된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외국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자본 결정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이주민의 출신 국적에 따른 사회자본 구조를 비교하였다. 먼저 이주민의 사회자본 설명 요인은 교육수준과 한국어 능력, 문화적 어려움과 차별 경험이 사회자본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중국, 일본, 타이완과 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은 다른 국적 출신 이주민보다 사회자본을 형성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신 국적에 따른 사회자본구조 비교 분석 결과 역시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중국과 일본 출신의 이주민은 느슨한 형태의 사회자본 연결망 구조를 가지는 반면, 유럽과 타이완 출신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밀도 있고 중첩적 형태의 연결망 구조를, 미국과 베트남 출신 이주민은 중간 형태의 연결망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제어 : 이주민, 출신국적, 사회자본, 사회적 관계, 사회연결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planatory factors of social capital of migrants living in Seoul and to compare the social capital structure of migrants according to their nationalities.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d the social capital determinants of immigrants residing in Seoul using the survey data of Seoul Metropolitan Area Index Survey conducted in 2016, and then analyzed the social capital structure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of the migrants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First, in terms of explaining factors of migrants' social capital, educational level, Korean language ability, cultural difficulties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ormation of social capital. In addition, migrants from China, Japan, Taiwan and the US were more likely to form social capital than immigrants from other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the social capital structure according to the subsequent nationality showed that there is a loose form of social capital network structure for migrants from China and Japan, while the immigrants from Europe and Taiwan are relatively dense and overlapping. In the case of immigran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the network structure of the intermediary type appeared.

Key Words : Immigrants, Nationality, Social Capital, Social Relation, Social Network

* 이 연구는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7S1A3A2065967).

** 한양대학교 SSK 다문화연구센터 전임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The Center for SSK Multi-cultural Research),
(E-mail: legperde@gmail.com Tel: 02-2220-1703)

I. 문제 제기

1990년 이후 외국인 노동인력 유입과 결혼이주가 활성화되면서 우리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기준 27만여 명의 외국인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양대학교 SSK 다문화연구센터, 2018).

우리 사회의 이주민 증가 현상은 자연스럽게 이주민의 삶에 관한 학문적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기 이주민 연구는 이주민의 증가 현상이나 추세, 원인, 개인적 특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이주민의 건강, 삶의 질, 사회적 관계, 범죄, 지역 등 이주민의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다루며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김두섭, 2014; 김세현, 2018).

이주민의 사회자본을 다룬 학술연구도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이 겪는 일상생활 영역에 기울이는 관심에서 출발한다. 한국사회에 소속된 이후 이주민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자본을 구축하게 된다. 가깝게는 가족이나 친구부터 넓게는 종교단체나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적·시간적 배경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에서 이주민은 신뢰를 구축하고 정서적 지지를 얻으며, 다양한 정보를 습득한다. 그러므로 이주민의 사회자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겪는 이주민의 생활세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주민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특수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안경주, 2016; 염미경, 2018; 이용균, 2007; 이은정·이용승, 2015; 이창호, 2013; 전형권·이소영, 2013; 황정미, 2010). 하지만 기존 연구는 농촌이

나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사회자본 특성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사회자본의 특수성과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양적 연구보다 질적 방법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논문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이주민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 유리한지 살펴보고, 이주민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구조적 형태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주민이 사회적 관계로 형성하는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사회자본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중 서울시에 체류하는 만 20세 이상의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외국인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자본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이주민의 국적에 따른 사회자본 구조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자본과 사회연결망

사회자본이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와 이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자원을 의미한다(Burt, 1997; Coleman, 1988; Lin, 2008). 사회자본은 개인 특성이나 소유물로 결정되는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과 다르게 개인이 다른 개인, 혹은 집단과 맺고 있는 관계의 연결망에서 얻을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Bourdieu, 1986), 개인의 공식적·비공식적 관계

망에서 형성된 관계를 유지·강화시켜 그 가치를 증대시키게 된다(Coleman, 1988; Putnam, 1993).

사회자본 관련 논의는 사회적 관계가 개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원의 특성이나 양적 한계를 넘어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은 행위자의 속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구성된 사회적 연결망에 배태(embedded)되어 있으며, 행위자들은 구성된 사회관계를 활용해 의도적으로 다른 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한다(Burt, 1997; Lin, 2008).

사회자본을 연구한 학자들은 관계의 성격과 특성, 즉 사회연결망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자본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약한 연결(weak ties)로 구성되는 연결망은 많은 정보와 기회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Granovetter, 1973; Lin, 2008). 반면 강한 연결(strong ties)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결망은 두터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정서적 교감과 핵심 자원의 보존·유지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Bourdieu, 1986; Coleman, 1990; Putnam, 2000).

사회자본의 효과는 사회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에서 발현되기도 한다.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이 가지는 효과는 배태성에 관한 Granovetter(1985)의 논의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배태성은 사회적 관계를 설명할 때 단순히 행위자의 전략이나 자원 배분의 측면이 아닌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Albert and Barabási(2002)가 제시한 선호적 연결(preferential attachment) 개념 역시 배태성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그들은 사회 네트워크에서 새로 생성되는 연결이 무작위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형성된 연결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Burt(2009) 역시 연결망의 구조 효과에 주목

하면서 정보의 흐름 측면에서 중복적 연결 구조와 구조적 공백이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그는 중복적이지 않은 연결은 구조적으로 강도가 약한 연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연결은 관계를 맺는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교량적(bridging) 사회자본과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으로 구분되기도 한다(Putnam, 2000). 교량적 사회자본은 연결을 맺고 있는 행위자의 사회적 배경이 이질적인 사람 간의 관계망으로 개인에게 새로운 자원에 접근할 가능성을 높여주며 열린 정보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결속적 사회자본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행위자끼리 맺어진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며 지속적 상호작용을 이어가게 된다.

이같이 사회연결망으로 사회자본의 특성을 검증하는 기존 연구들은 행위자가 구성하게 되는 사회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거나 행위자가 맺고 있는 연결들이 배태하고 있는 구조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urt, 1983; Burt, 1987; Granovetter, 1973; Podolny, 1993; Uzzi, 1996). 이는 사회 구성원이 얻게 되는 사회자본의 측정이 많으면 사회연결망의 측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은 사회 연결망의 유형과 크기, 그리고 연결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의 가치에 주목하면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있다(Bourdieu, 1986; Portes, 1995; Van der Gaag and Snijders, 2004).

2. 한국 이주민의 사회자본 연구

1990년대 이후 한국에 나타난 이주환경의 변화

는 여러 학문분야에 걸친 이주민 연구로 이어졌다. 특히 2000년대 다문화 현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가 이주민 연구를 촉진시켜 이주목적이나 출신국가, 성별 같은 이주민의 특성에 따라 대상을 세분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세현, 2018).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다룬 학문적 연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주민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 역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사회자본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사회자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자본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이 개인의 만족도나 직업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이주민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크기나 결속의 강도가 한국생활 적응이나 결혼생활, 직업만족도(구예원·박인권, 2015; 김경미, 2012; 나금실, 2011; 민무숙 외, 2013; 이해경·전혜인, 2013, 주영·안귀여루, 2017), 정보 획득의 기회 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한다(이용균, 2007; 이은정·이용승, 2015; 박형기 외, 2014).

한편, 사회자본의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는 대부분 질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이주민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형태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안경주, 2016; 이용균, 2007; 이은정·이용승, 2015; 이창호, 2013; 전형권·이소영, 2013; 황정미, 2010). 이러한 연구는 농촌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새롭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과 관계의 형태·유형에 주목하면서, 사회자본을 이용하여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는 출신국적에 따라 사회자본의 의미나 영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민의 문화적 배경뿐 아니라 거주기간, 인구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이 국적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주민 분석 시 출신 국적에 따른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김경미, 2012; 민무숙 외, 2013).

종합하면 국내에서 진행된 이주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이주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회자본의 단절과 새롭고 이질적인 환경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어려움, 그리고 새롭게 사회자본을 재구성해야 하는 이주민의 특수한 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연구들은 이주민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배경 요인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인다. 또한 기존 연구는 이주민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데 있어 이주민이 실제로 형성하는 연결 구조를 측정하기보다 인지적 차원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거나, 관계의 규모와 이질성을 중심으로 개념을 조작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사회자본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 출신 국적에 따라 이주민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 1〉 이주민의 사회자본 형성을 설명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질문 2〉 이주민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구조는 출신국적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I. 분석 대상과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는 이주민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2016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중 외국인 자료를 이용하였다. 2016년 서울거주 외국인 조사는 서울시에 체류하는 만 20세 이상의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서울에서의 삶의 질과 교통·환경, 결혼생활·사회 교류, 일상생활 등 총 29개 항목 자료를 방문면접조사로 수집하였다. 외국인 모집단은 서울시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무응답률이 높은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 체류자격, 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서울서베이 2017 보고서, 2017:2). 이 연구는 조사에 참여한 2,500명 중 결측 자료를 제외한 2,33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이주민의 사회자본 형성을 설명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주민이 형성한 사회자본의 구조를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비교·시각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이주민의 사회자본 결정요인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후 이주민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연결망을 구성해 이주민의 출신 국적에 따른 사회자본의 구조를 비교하였다.

1) 이주민의 사회자본 형성 결정 요인 분석

(1) 종속 변인: 이주민의 사회자본 유무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은 개인이 맺는 사회적 관

계와 여기서 얻게 되는 자원을 의미한다(Burt, 1997; Coleman, 1988; Lin, 2008). 이러한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는 연결의 성격이나 구조적 특성, 연결 유무에 주목하고 있다(Burt, 1997; Putnam, 2000; 김경미, 2012; 민무숙 외, 2013). 이 연구는 다양한 사회자본의 특성 중 연결 유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이주민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았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이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정기적 모임·단체 활동 참여 문항(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은 어떤 것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시오)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인은 설문 문항에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 한 곳 이상인 이주민은 1로, 참여하는 모임이 없는 이주민은 0으로 구성하였다.

(2) 이주민의 한국 생활 변인

이 연구가 이주민의 특성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는 거주 기간과 한국어 능력, 한국에서의 어려움과 차별 경험 변인이다.

먼저 한국어 능력은 이주민의 한국어 능력을 말하기·읽기·쓰기·듣기로 구분해 그 값을 합산하여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매우 잘 함, 잘하는 편, 보통, 서툰 편, 매우 서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한 한국어 실력을 보유한 이주민일수록 한국어 능력 점수가 높아지도록 구성하였다($\alpha = .913$).

2016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는 이주민이 서울생활에서 겪게 되는 주요 상황을 12가지로 구분하고 각 상황에 따라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5

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의 여부가 달라지는 자녀 양육·교육 문항을 제외한 11개 문항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어려움 변인을 구성하였다. 이주민의 어려움 변인은 문화적 어려움과 생활 어려움의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하였다. 문화적 어려움은 이주민이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느끼는 언어문제, 외로움, 한국식 생활 문화, 음식, 사회적 편견에 관련된 5가지 문항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alpha=.777$). 생활 어려움은 경제활동 기회, 한국인과 유대관계 맺기, 공공기관 민원, 교육기회, 의료기관 이용, 주거문제와 관련된 6가지 문항을 이용하였다($\alpha=.768$).

차별 경험은 거리나 동네, 상점이나 음식점, 공공기관, 부동산 거래, 직장 같은 이주민의 생활세계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본 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5가지 사례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변수를 구성하였다($\alpha=.868$).

이주민의 거주기간 변인은 응답자가 한국에서 거주한 개월 값을 연 단위로 변환하여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3) 이주민의 출신 국적 변인

서울 도시정책지표조사는 이주민의 출신 국적을 중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미국, 유럽, 아시아 기타, 영미권 기타, 기타 지역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영미권 기타와 기타 지역을 제외한 6개 지역을 중심으로 더미변수를 구성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4) 통제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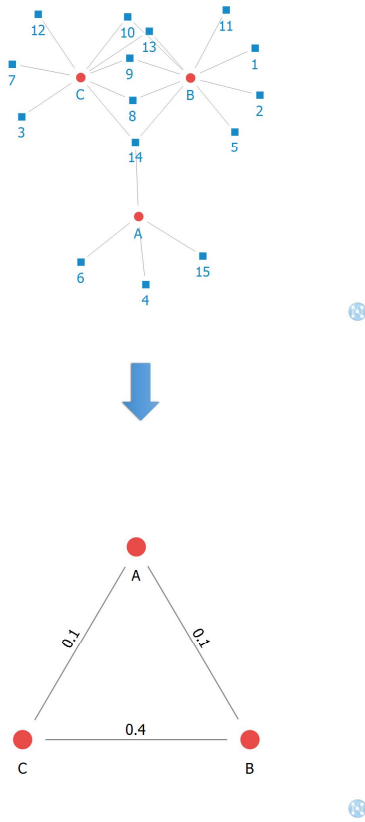
이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이주 관련 변

인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이주민의 연령과 성별,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연령은 조사기점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만 나이를 계산해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여성을 1로 하는 더미변수로,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이하·중학교·고등학교·대학·대학원으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은 유학생처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이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표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 생활에서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한 10점 척도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이주민 사회연결망 구성과 분석

(1) 이주민 특성에 따른 사회연결망 구성

이주민이 형성하는 사회자본 연결망을 측정하고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이주민의 모임 참여 패턴을 분석하여 유사도에 따른 주요 단체 간 연결망을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사도 측정은 거리계수(distance coefficient), 연관계수(associ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확률적 유사계수(probabilistic similarity coefficient)의 방법으로 구분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두 대상이 표현하고 있는 속성 간의 일치 정도를 측정하는 연관계수 중 하나인 자카드 계수(jaccard coefficient)를 이용했다(Sokal and Sneath, 1973). 자카드 계수는 이진(binary) 값을 가지는 자료에서 개체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사회 연결망분석이나 문헌 클러스터링 분석,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의미연결망 분석, 협업 필터링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Das et al., 2007; Huang, A., 2008; Niwattanakul et al., 2013). 자카드 계수는 두 개체의 동시출현빈도로



〈그림 1〉 자카드 계수를 이용한 연결망 구성

측정되며 공통 특성이 많을수록 증가하고, 0~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자카드 계수의 산출 식은 다음과 같다.

$$J(A, B) = \frac{|A \cap B|}{|A \cup B|} = 1 - \frac{\sum_{i=1}^N (x_{Ai} - x_{Bi})^2}{N}$$

$$N = n(A \cup B)$$

〈그림 1〉은 이주민이 참여하는 주요 단체와 모임 간 관계연결망을 구성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화살표 위쪽은 이주민-참여단체 2원 연결망을 이주민은 사각형으로, 참여단체는 원으로 시각

화한 그림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B와 C단체는 5명의 이주민으로 연결되어 있고, A와 B, A와 C단체는 각각 1명의 이주민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결의 강도 측면에서 B-C 연결보다 A-B, A-C 연결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2원 연결망은 이주민 참여 형태의 유사도에 따라 화살표 아래의 연결망 형태로 재구성이 가능하다. 그림에서 단체 간 연결은 자카드 계수로 계산되는데, B-C 연결의 자카드 계수는 약 0.4로 다른 연결에 견줘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자카드 계수를 활용하여 이주민 특성에 따라 참여하는 주요 단체·모임 간 연결망을 구성하고, 구성된 연결망의 특성을 탐색하였다.

자카드 계수로 형성된 연결은 이질적 특성을 지닌 단체에 정기적으로 동시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연결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결은 Putnam(2000)이 제시한 것처럼 이질적 집단 사이에 구성되어 새로운 자원에 접근하고 열린 정보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교량적 자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이주민 사회연결망 군집분석과 시각화

자카드 계수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주민의 사회자본 연결망의 특성을 비교하려고 CN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연결망을 구분한 뒤 시각화하였다. CNM 알고리즘은 최고 최적 기반 알고리즘(greedy modularity based algorithm)으로, 연결망의 군집이 최적의 적합도를 가지는 경우를 계산해 타당한 모델을 산출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결망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Clauset et al., 2004; Theodoridis

and Koutroumbas, 2006; 김세현 외, 2016).

연결망의 시각화를 위해 클러스터드 이디즈(clustered eades)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연결망의 시각화 과정에서 같은 군집에 속해 있는 노드는 서로에게 더 밀접하게 위치시키고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해 있는 경우 더 멀게 위치하도록 하여 군집 간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Eades, 1984).

(3) 이주민 사회연결망 행렬 QAP 상관 분석

이 연구는 자카드 계수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특성에 따라 구성되는 연결망 구조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목적으로 2차 할당방식(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이하 QAP)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efficient)로 연결망의 유사성을 비교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도를 검정하기 위해 QAP 검정을 진행하였다. QAP는 특정 확률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검정(non-parametric test)으로, 순열검정(permutation

test)을 이용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다. 일반적으로 QAP 검정은 행렬로 구성된 연결망 간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려고 주로 이용되는데,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본을 반복적으로 복원 추출하는 방법인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을 이용해 새로운 연결망을 구성한 후 이를 비교하여 결과의 유의도를 추정한다(Hubert, 1986; 콕기영, 2014).

IV. 분석 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조선족 포함) 출신 이주민이 49.8%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으며, 미국과 베트남, 타이완, 일본, 유럽 출신의 이주민 비율은 각각 7.3%, 6.7%, 6.4%, 5.9%, 4.5% 수준이었다.

<표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출신 국적							전체
		중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미국	유럽	기타	
연령	20대	29.9	39.9	58.4	70.5	17.5	38.7	31.6	34.8
	30대	25.9	29.0	20.8	17.9	29.8	27.4	41.8	28.6
	40대	13.4	16.7	10.1	2.6	18.1	15.1	13.6	13.1
	50대	16.4	10.9	6.0	6.4	17.0	12.3	6.4	13.2
	60대 이상	14.4	3.6	4.7	2.6	17.5	6.6	6.7	10.2
성별	여성 기준	53.9	69.6	75.2	67.3	48.0	54.7	55.8	57.0
교육수준	초등 이하	7.2	0.7	2.0	3.2	4.7	1.9	1.8	4.8
	중학교	19.9	5.8	6.7	9.0	22.2	19.8	12.0	16.1
	고등학교	49.9	51.4	55.7	68.6	27.5	45.3	47.6	49.3
	대학	19.2	36.2	33.6	18.6	40.9	29.2	34.7	26.1
	대학원	3.7	5.8	2.0	0.6	4.7	3.8	4.0	3.6
사례 수		1,160 명 (49.8)	138 명 (5.9)	149 명 (6.4)	156 명 (6.7)	171 명 (7.3)	106 명 (4.5)	450 명 (19.3)	2,330 명 (100)

단위 (%)

연령대별로 20대 비율이 34.8%로 가장 높았고, 30대, 40대, 50대 이주민 비율은 각각 28.6%, 13.1%, 13.2%로 확인됐다. 국적에 따른 연령대는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20대 비율(70.5%)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타이완 출신 이주민의 20대 비율 역시 58.4%로 다른 국가의 20대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은 이주민의 57%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에 따른 성별 비율은 타이완 출신 이주민의 75.2%가 여성으로 나타났고, 일본과 베트남 출신 이주민도 각각 69.3%, 67.3%가 여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 출신 이주민은 여성 비율이 48.0%로 확인돼 유일하게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주민이 49.3%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이주민은 26.1%, 중학교와 초등학교 이하, 대학원 졸업이 각각 16.1%, 4.8%, 3.6%를 기록했다. 출신 국적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이주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비율이 68.6%로 다른 국적 출신 이주민

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미국 출신 이민자는 대학교 졸업자 비율이 40.9%로 다른 국가에 견줘 높게 나타났다.

〈표 2〉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결과이다.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사회자본 형성 유무 변인을 살펴보면 분석 대상의 64%가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신 국적에 따른 사회자본 형성 유무를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78%가 정기적인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중국 출신 이주민은 56%만 정기적 사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민이 느끼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은 평균 5.17로 나타났는데, 미국 출신 이주민이 5.71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중국 출신 이주민은 4.8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조사 이주민이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4.64년으로 확인됐다. 국적별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타이완 출신 이주민이 평균 6.24년으로 한국에 가장 오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단위: 평균 (표준편차)

변수	출신 국적							전체
	중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미국	유럽	기타	
사회자본 형성	0.56(0.50)	0.61(0.49)	0.62(0.49)	0.78(0.42)	0.70(0.46)	0.75(0.44)	0.79(0.41)	0.64(0.48)
사회경제적 지위	4.88(1.51)	5.63(1.55)	5.22(1.44)	4.96(1.71)	5.71(1.42)	5.66(1.51)	5.52(1.47)	5.17(1.55)
거주기간(년)	5.04(3.77)	4.62(6.88)	6.24(13.66)	2.58(2.88)	6.21(5.78)	3.33(4.07)	3.53(3.86)	4.64(5.42)
한국어 능력	14.54(3.27)	11.55(3.89)	11.68(3.62)	11.42(2.99)	11.91(3.88)	11.91(3.89)	11.33(3.60)	13.04(3.77)
문화적 어려움	12.44(3.52)	13.16(3.41)	14.22(3.40)	16.21(3.07)	14.43(3.61)	14.58(3.46)	14.62(3.44)	13.52(3.67)
생활 어려움	17.6(17.61)	17.12(3.87)	17.92(4.47)	18.74(3.82)	17.44(3.76)	17.75(3.55)	17.77(4.21)	17.70(3.86)
차별 경험	8.68(3.17)	8.12(3.62)	8.60(3.48)	9.17(3.52)	9.42(3.51)	9.15(3.79)	9.41(3.54)	8.89(3.39)

미국(6.21년), 중국(5.04년), 일본(4.62년), 유럽(3.33년) 순이었다. 베트남 출신 이주민은 평균 거주기간이 2.58년으로, 다른 국적 출신 이주민보다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짧았다.

이주민의 한국어 능력 변인은 출신 국가에 따라 능력의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국 출신 이주민의 한국어 능력은 평균 14.54로, 다른 국적 출신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평균(11.6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어에 능숙한 조선족 이주민이 중국 국적에 포함된 결과로 추정된다.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이주민은 문화적 어려움과 한국 생활의 어려움 정도가 각각 평균 16.21, 18.74로 다른 나라 출신 이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출신 이주민은 다른 이민자에 견줘 상대적으로 문화적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있었고, 일본 출신 이주민은 다른 이주민보다 생활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은 평균 8.89의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 미국 출신 이주민이 평균 9.42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일본 출신 이주민은 평균 8.12로 다른 이민자보다 상대적으로 차별 상황을 적게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 이주민의 사회자본 형성 결정 요인

이민자의 특성과 사회적 변인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모형 1은 이주민의 연령과 성별, 학력 같은 통제변인과 한국에서의 생활 관련 변인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모형 2는 이주민의 출신국적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주민의 한국 생활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모형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주민의 거주기간과 한국어 능력, 문화적 어려움과 차별경험 변인이 사회자본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민의 거주기간은 다른 변인을 통제하면 거주기간이 1년 증가할 때 사회자본을 형성할 승산비(odds ratio)가 1.019로 나타났다. 그런데 다른 변인을 통제할 때 이주민의 한국어 실력이 1단계 증가하면 사회자본을 형성할 승산비는 0.955로 확인돼 한국

<표 3> 이주민의 사회자본 형성 요인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분석

변수	모형 1		모형 2	
	B	Exp(B)	B	Exp(B)
연령	-.001	.999	-.001	.999
성별	-.140	.869	-.129	.879
교육수준	.196 ***	1.216	.174 ***	1.191
사회경제적지위	.052 *	1.054	.025	1.026
거주기간	.019 *	1.019	.024 **	1.025
한국어 능력	-.046 ***	.955	-.025 *	.975
문화적 어려움	.061 ***	1.062	.036 **	1.036
생활 어려움	.006	1.006	.020	1.020
차별 경험	.027 *	1.027	.022	1.022
중국			.884 ***	2.421
일본			.863 ***	2.370
출신 타이완			.894 ***	2.444
국가 베트남			.101	1.106
미국			.476 **	1.609
유럽			.200	1.221
회귀상수	-.820	.440	-3.566 ***	.028
사례 수	2,330		2,330	
Naglerkerke R^2	.052		.084	
-2Log likelihood	2948.274		2891.699	
χ^2 (d.f)	89.918 *** (9)		146.493 *** (15)	

* $p < 0.1$, ** $p < 0.05$, *** $p < 0.01$

어 능력이 떨어지는 이주민이 사회자본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생활에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이주민일수록 사회자본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모형 2에서는 이주민의 출신 국적 변인이 사회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른 변인을 통제했을 때 중국과 일본, 타이완, 미국 출신 이주민이 사회자본을 형성할 승산이 다른 이주민보다 각각 2.421배, 2.370배, 2.444배, 1.609배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베트남과 유럽 출신 이주민의 사회자본 형성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국적 출신 이주민이 사회자본을 형성·유지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차별경험은 이주민의 출신국적이 사회자본 형성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교육수준 변인은 모형 1과 2에서 모두 이주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

회자본 형성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 변인은 모형 1과 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주민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은 이주민의 출신 국적 변인을 통제할 경우 이주민의 사회자본 형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3. 이주민의 출신국적에 따른 사회자본 연결망

서울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자카드 계수를 이용하여 사회연결망을 구성하였다. 연결망 분석과 시각화를 위하여 자카드 계수 값이 0.1 이상인 연결을 중심으로 사회자본연결망을 구성하였다. <표 4>는 구성된 연결망의 기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¹⁾는 구성된 사회자본 연결망을 CN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군집구조를 구분한 뒤 클러스터드 이디즈 알고리즘으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표 4> 이주민 국적에 따른 사회자본 연결망 기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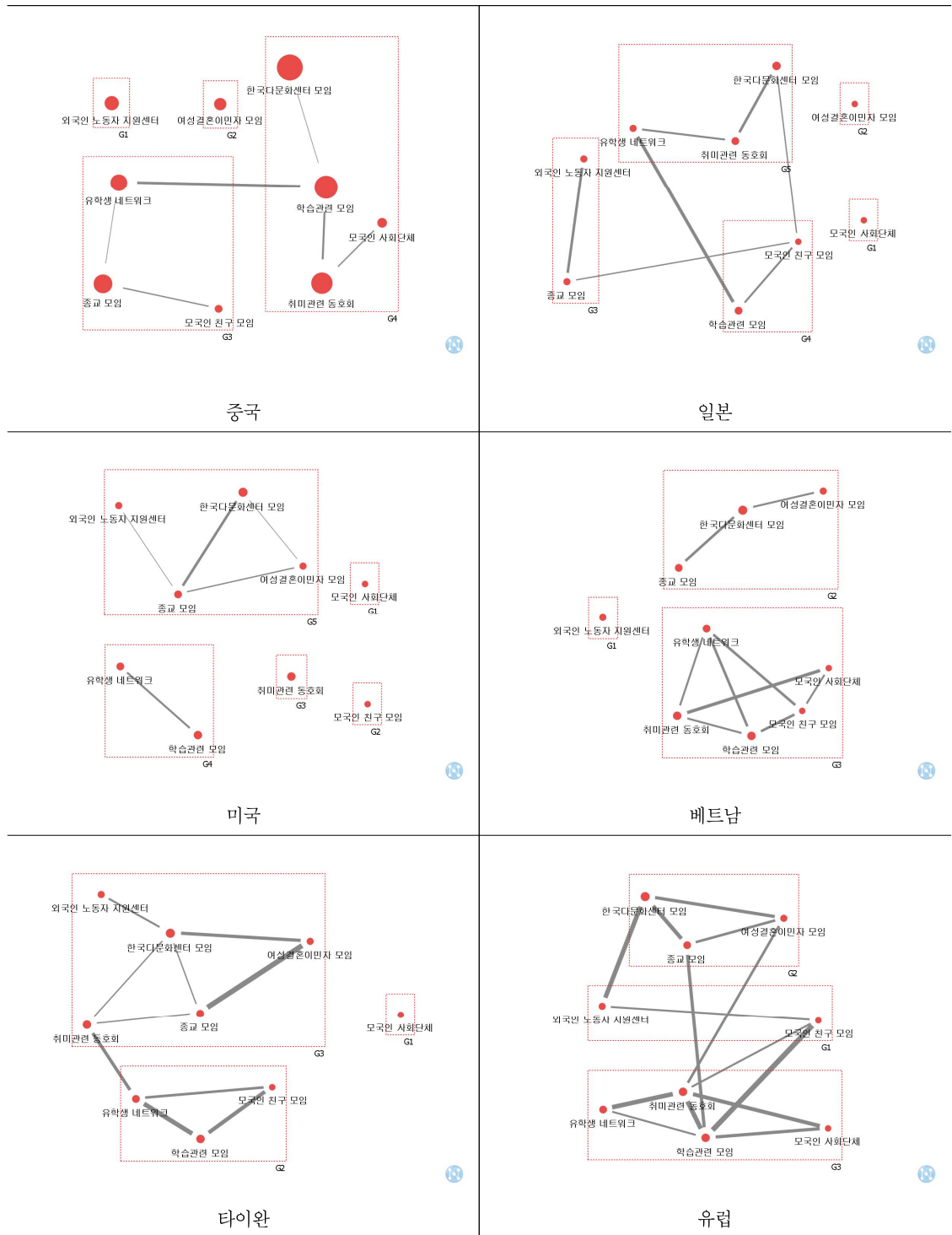
구분	중국		일본		타이완		미국		베트남		유럽	
	관측	기대	관측	기대	관측	기대	관측	기대	관측	기대	관측	기대
노드 수	9											
링크 수	6		7		10		5		9		14	
밀도	0.167		0.194		0.278		0.139		0.25		0.389	
연결성	0.583	0.582	0.583	0.583	0.778	0.778	0.194	0.412	0.361	0.777	1	1
군집 계수	0	0.456	0	0.467	0.667	0.582	0.778	0.540	0.333	0.532	0.437	0.627
구성 집단 수	3	3.018	3	3	2	2	5	4.002	3	2.002	1	1

1) 자카드 계수가 0.1 이상인 링크의 값을 1로 변환하여 계산

2) Iterations: 18,000

1) 시각화된 연결망에 반영된 속성은 다음과 같다.

- 노드의 크기: 각 모임의 참여 빈도
- 연결의 강도: 자카드 계수 값



〈그림 2〉국적에 따른 사회자본 연결망 비교 (자카드 계수 0.1 이상)

관찰된 사회자본 연결망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려고 관찰된 연결망과 동일한 조건의 무작위 연결망²⁾을 구성해 특성을 비교하였다. <표 4>에서 관측값은 이주민의 국적에 따라 형성된 사회자본 연결망의 고유 특성 값이며, 기댓값은 비교를 위해 18,000회의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된 연결망의 특성 평균값을 의미한다.

먼저 연결망을 구성하는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의 숫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유럽 출신 이주민의 사회자본 연결망의 링크가 14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5개로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 출신 이주민이 다른 국가 출신 이주민보다 밀도 있는 사회자본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결 강도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밀도가 비교적 높은 유럽이나 타이완,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사회적 연결이 다른 국적의 이주민보다 더 밀접한 연결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연결망을 구성하는 노드의 쌍 중 실제로 연결이 가능한 쌍의 비율을 계산한 연결성(connectedness) 지표를 살펴보면 유럽 출신 이주민 사회자본 연결망의 연결성이 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타이완, 중국과 일본, 베트남, 미국이 각각 0.778, 0.583, 0.361, 0.194 순으로 나타났다. 연결망을 구성하는 노드가 뭉쳐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군집 계수(clustering coefficient)는 미국 출신 이주민 사회자본 연결망이 0.778로 가장 높았으며 타이완, 유럽, 베트남이 각각 0.667, 0.437, 0.333으로 확인됐다. 반면 중국과 일본 이주민의 사회자본 연결망 클러스터링 계수 값은 0으로 매우 분산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연결망을 구성하는 집단의 수를 보여주는 구성 집단 수(numbers of components)

값을 보면 유럽은 단일한 구성 집단, 타이완은 두 개의 집단, 중국과 일본, 베트남이 각각 3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미국은 총 5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매우 분절적 연결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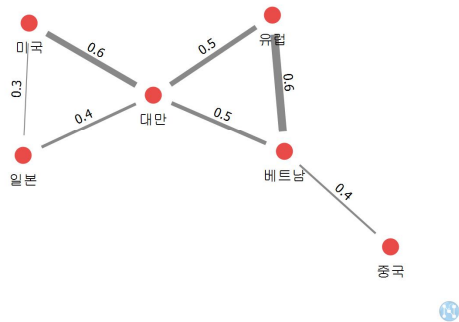
관측된 연결망과 시뮬레이션된 연결망의 연결망 특성 값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연결망 유형이 관찰된다. 첫째는 중국과 일본처럼 관측된 군집 계수 값이 기댓값보다 작지만 연결성 값은 유사한 연결망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일본의 사회자본 연결망이 시뮬레이션된 연결망보다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노드 간 연결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미국과 베트남 같이 관측된 연결성 값이 시뮬레이션된 기댓값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지만 군집 계수 값은 유사한 연결망이다. 이러한 연결망은 전체적으로는 분절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구성 집단은 매우 밀도 있게 구성되어 있는 연결망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은 유럽과 타이완처럼 연결성 값과 군집 계수 값 모두 기댓값과 관측된 값이 유사한 연결망이다. 이러한 연결망은 통합되고 연결성이 높은 구조를 갖춘 동시에 노드 간 군집 또한 보여주고 있다.

<표 5>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주민의 출신 국적에 따른 사회자본 연결망의 구조적 유사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해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 3>은 상관분석 결과 중 이주민의 국적에 따른 사회자본 연결망의 유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례를 추출하여 도식화한 그림이다. 이 연구는 피어슨 상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려고 행렬 간 순열(permutation)

2) 무작위 연결망은 MCMC(Markov Chain Monte Carlo) 방법을 사용하여 노드 수와 연결(degree) 값이 동일한 임의의 연결망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관측된 연결망과 시뮬레이션된 연결망의 노드 수, 링크 수, 밀도 값은 서로 같다.

〈표 5〉 이주민의 국적에 따른 사회자본 행렬 QAP 상관분석

국적	중국	일본	타이완	미국	베트남
일본	.227				
타이완	.056	.411 *			
미국	.148	.252	.578 **		
베트남	.355 *	.232	.504 **	.345 *	
유럽	.136	.145	.513 **	.234	.583 **

* $p < 0.05$, ** $p < 0.01$, Iteration: 18,000

〈그림 3〉 이주민의 출신 국적에 따른 사회자본 연결망 유사성

을 18,000회 시행하여 유의 확률을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출신 국적에 따라 연결망 구조의 유사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성 정도를 보여주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면, 타이완 출신 이주민의 사회자본 행렬이 미국과 유럽, 베트남, 일본 출신 이주민의 사회자본 행렬과의 상관계수가 각각 0.578, 0.513, 0.504, 0.411로 분석돼 연결 구조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베트남 출신 이주민은 타이완 이외에도 유럽과 중국 출신 이주민이 형성하는 연결망과의 상관계수가 각각 0.583과 0.355로 나타나 이들 국

가 출신 이주민 연결망이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V. 결론

이 연구는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자본 결정요인을 확인하고 이주민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자본 연결 구조를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해 출신 국적별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 역시 사회자본이 이주민의 생활과 한국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기보다 이주민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특성과 구조를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이주민은 국제이주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활, 언어, 문화적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 연구는 언어적·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이 사회자본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이주민이 사회자본으로 여러 생활세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타이완, 미국 출신 이주민은 다른 국적 출신 이주민보다 사회자본을 형성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적에 따른 문화적 차이나 이주 유형, 이주민 커뮤니티 규모 등 다양한 사회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출신 국적에 따른 사회자본의 차이는 이주민이 구성하는 사회자본 연결망 구조에서도 나타난다. 분석 결과, 중국과 일본 출신 이주민은 느슨한 형태의 사회자본 연결망 구조가 나타난 반면 유럽과 타이완 출신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밀도 있고 중첩적 형태의 연결망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과 베트남 출신 이주민은 중간 형태의 연결망 구조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출신 국적에 따라 새로운 자원이나 열린 정보 접근성이 차이를 보이며,

자원획득이 불리한 이주민은 밀도 있는 사회적 연결로 자원과 정보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자본을 분석하는 기존 논의는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일반적으로 연결망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특성을 정의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교량적 사회자본의 속성을 지닌 사회적 관계가 출신국적에 따라 다른 구조적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배태성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결과는 중국과 일본 출신 이주민이 다른 이주민보다 비교적 쉽게 새로운 정보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럽과 타이완 출신 이주민은 밀도 있고 중첩적인 사회자본 연결망을 구성해 자원과 정보 획득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자본 형성요인을 살펴보고 출신국적에 따른 사회자본 연결망 구조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가 지닌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시 거주 이주민이 구성하는 사회자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연구가 농촌이나 지방군소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사회자본에 집중한 반면, 이 연구는 서울 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자본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이 연구는 이주민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의 형태를 경험적 방법으로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주민의 사회자본 특성에 주목하는 많은 연구가 이주민의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주민의 사회자본 구조를 살펴보고 2016년에 진행된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중 외국인 자료를 재가공하여 이주민의 출신국적에 따른 사회자본 연결망을 재구성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이주민의 출신 국적에 따른 사회자본의 유형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은 단순히 문화적 배경뿐 아니라 거주 기간, 거주 지역, 인구 규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적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민들의 출신 국적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이주민의 생활세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지닌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민의 국적에 따른 사회자본의 형성 유무와 구조적 차이는 분명하게 제시하였지만 사회자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이주민의 사회자본을 탐색할 목적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주민의 사회자본을 재구성하는 데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 자카드 계수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는 이주민이 참여하는 사회 모임을 유형적 차원으로만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회자본 연결망을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종합하면,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연결망은 출신 국적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출신국적 같은 이주민 특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어렵거나 동족집단을 이루기 어려운 특정 국적 출신 이주민에게 정보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주민의 특성에 따른 선별적 정책적 지원이 진행된다면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곽기영, 2014, 「소셜네트워크분석」, 서울: 청람.
- 구예원·박인권, 2015, “이주자의 사회적 자본 인지와 지역 사회 적응의 관계”, 「도시행정학보」, 28(4): 53~76.
- 김경미,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연결망과 한국생활 만족도”, 「한국인구학」, 35(2): 185~208.
- 김두섭, 2014, “거주지역의 민족구성인 혼인이주여성의 사회활동과 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7(1): 1~29.
- 김세현, 2018, “비정형자료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다문화 연구”, 「한국인구학」, 41(1): 1~27.
- 김세현·박수호·유승호, 2016, “연구자·학술지 연결망 분석을 통해 본 학술 생태계의 불평등 현상”, 「사회사상과 문화」, 19(3): 319~358.
- 나금실, 2011,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자본과 취업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435~454.
- 민무숙·김이선·주유선·이정연,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통해 본 사회통합의 과제”, 「여성연구」, 5~43.
- 박형기·김석호·이정환, 2014,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사회 연결망과 이직경험”, 「한국인구학」, 37(1): 31~57.
- 서울특별시, 2017, 「서울서베이 2017」.
- 안경주, 2016, “제한 중국 유학생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 호혜성과 선물의문화적 하우(hau): 지방 H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9(3): 183~227.
- 염미경, 2018, “산업화시기 제주이주민의 지역정착과 사회 연결망”, 「제주도연구」, 49: 59~83.
-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은정·이용승, 2015, “이주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OUGHTOPIA」, 30(1): 93~134.
- 이창호, 2013, “이주민 일상 속의 사회적 연결망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7(2): 109~136.
- 이혜경·전혜인, 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4): 413~432.
- 전형권·이소영, 2013, “국제결혼이주자들의 사회적 연결망과 초국가성: 광주·전남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68: 205~232.
- 주영·안귀여루, 2017, “유학생의 사회적 자본이 대학생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2): 245~271.
- 한양대학교 SSK 다문화연구센터, 2018, 「다문화 시·군·구 통계 Data Sheet, 2016」.
- 황정미, 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한국여성학」, 26(4): 1~38.
- Albert, R. and Barabási, A. L., 2002, “Statistical mechanics of complex networks”, Reviews of modern physics, 74(1): 47.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 Burt, R. S., 1983, Corporate profits and cooptation: Networks of market constraints and directorate ties in the American economy, Academic Press.
- Burt, R. S., 1987, “Social contagion and innovation: Cohesion versus structural equival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6): 1287~1335.
- Burt, R. S., 1997, “A note on social capital and network content”, Social networks, 19(4): 355~373.
- Burt, R. S., 2009,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Clauset, A., Newman, M. E., and Moore, C., 2004, “Finding community structure in very large networks”, Physical review E, 70(6): 066111.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as, A. S., Datar, M., Garg, A., and Rajaram, S., 2007, “Google news personalization: scalable online collaborative filtering”, Proceedings of 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 27

- 1~280.
- Eades, P., 1984, "A heuristic for graph drawing", *Congressus numerantium*, 42: 149~160.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Granovetter, M.,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Huang, A., 2008, "Similarity measures for text document clustering", *Proceedings of the sixth new zealand computer science research student conference (NZCSRSC2008)*, Christchurch, New Zealand, 49~56.
- Hubert, L., 1986, *Assignment methods in combinational data analysis*, CRC Press.
- Lin, N., 2008, 「사회자본」, 김동훈·오소현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 Niwattanakul, S., Singthongchai, J., Naenudorn, E., and Wanapu, S., 2013, "Using of Jaccard coefficient for keywords similarit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MultiConference of Engineers and Computer Scientists*, 1: 6.
- Podolny, J. M., 1993, "A status-based model of market competi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4): 829~872.
- Portes, A., 1995,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Russell Sage Foundation.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The american prospect*, 413: 35~42.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Culture and politics*, 223~234. Palgrave Macmillan, New York.
- Sneath, P. H. and Sokal, R. R., 1973, *Numerical taxonomy,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numerical classification*.
- Theodoridis, S. and Koutroumbas, K., 2006, "Clustering: basic concepts", *Pattern recognition*, 483~516.
- Uzzi, B., 1996, "Th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embeddedness for the economic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The network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4~698.
- Van der Gaag, M. and Snijders, T. A., 2004, "Proposals for the measurement of individual social capital", *Creation and returns of social capital*, 199~218.
- 원 고 접 수 일 : 2018년 7월 16일
1차심사완료일 : 2018년 10월 18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8년 11월 28일

